

# “늦어서 죄송합니다...용서하십시오” 5·18 계엄군, 민주묘지 참배

신순용 당시 3공수여단 소령  
광주일보와 인터뷰 4년만에  
“‘아들의...’ 영화 보고 용기 내  
한 풀어 드리려 전력 다할 것”

5·18민주화운동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 출신 신순용(72·80년 당시 소령)씨가(2017년 11월 13일 광주일보 1·3·6면) 지난 21일 국립5·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.

신 소령은 지난 2017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·18당시 ‘시민군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’고 증언하고 용서를 구했지만, 국립5·18민주묘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신 소령은 이번 사죄방문의 계기로 최근 각종 언론에 계엄군의 증언과 용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, 최근 개봉한 ‘아들의 이름으로’ 영화 관람한 점 등을 꼽았다.

신 소령이 최근 관람한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는 5·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전사 장교가 진정한 사죄를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.

양심선언과 사죄를 촉구한 한 편의 영화가 현실에서 계엄군의 사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광주와 5·18을 사회적·역사적 의미가 담긴, 세대를 초월한 ‘문화’로 승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.

신 소령은 자신해서 5·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측에 사죄방문을 요청했다.

5·18민주묘지를 방문한 신 소령은 ‘민주의 문’의 방명록에 “늦어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”라고 남기고 묘지를 향했다.

제단에서 헌화·분향과 목욕을 마친 신 소령은 “미안합니다”라며 오월 영령에 큰 절을 세 번 올렸다. 이후 신 소령은 옛 광주교도소에 인근에서 희생당한 고규석·서만오 열사의 묘지를 참배했다.

두 열사의 묘지를 들린 신소령은 연신 “죄송합니다. 용서하십시오”를 되풀이 했다.

이날 신소령은 “제가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(광주교도소 안팎) 고숙도로 참상을 목격하고 관여를 했다. 교도소 담벼락 앞에서 앞 중간, 끝에 1개 조인 총 30명 정도 매복을 했다. 담양 방면으로 이동하는 트럭을 향해 매복조가 조준사격을 해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굴러떨어졌다”고 증언했다.

신 소령의 사죄에 광주도 즉각 화답했다. 김영환 5·18유족회장은 신 전 소령에게 “용기를 내서 감사 드린다. 40여년 간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까.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이제는 잊고 우리(유)가 죽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”고 전했다.

신소령은 지난 10일 ‘아들의 이름으로’ 서울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. 이 영화의 감독인 이



5·18민주화운동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 출신 신순용씨가 지난 21일 국립5·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. <5·18 기념재단 제공>

정국 감독의 이전 작품인 다큐멘터리 ‘반성’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됐다.

영화 관람 후 신 소령은 이 감독에게 “영화 잘 봤다”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.

이 감독은 “신 소령이 원래부터 마음은 있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가 이번 영화관람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”면서 “이번 이외에도 의도치않게 강제로 계엄군으로 활동한 분들이 양심고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고 전했다.

신 소령은 “백년 사죄 해도 광주분들의 한은 풀리지 않겠지만 이번 방문으로 5·18 희생자들에게 위

로가 됐으면 한다”면서 “1980년 당시 서강언덕·산수동 뒷산·무등산 뒷자락 등에 3공수 여단 병력을 배치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당시 3공수여단에서 청년들 조준사격했다는 이야기도 7·8건 이상을 들었다”고 했다.

또 신 소령은 “광주는 이미 용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”면서 “1980년 광주에서 폭도로 누명을 쓰고 희생된 억울한 영령들을 위한 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당시 계엄군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”고 덧붙였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

광주시 동구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에서 지난 22일 열린 ‘미안마민중항쟁 지지·사회개혁 촉구 시국선언’ 참가자인 재한 미안마 활동가가 미안마의 상황을 설명하자 참석한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미안마를 지지하는 의미로 세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.

## 전국 교수들 “미안마 항쟁 지지”

광주서 집회...대한민국 사회개혁 촉구도

광주에서 교수와 연구자 등 전국의 지식인들이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.

광주·전남 교수연구자연합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에서 ‘5월 광주가 쏘아올린 위대한 햇볕은 끝나지 않았다’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5·18민주광장까지 시가행진을 진행했다. 이 자리에는 재한미안마 활동가 2명이 참석해 교수 연구자들에게 미안마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.

이에참가자들 모두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세손가락을 들어보여 미안마를 지지하는 퍼

포먼스를 보여줬다.

교수 연구자들은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5·18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

이들은 “미안마 군부모습은 41년 전 이곳 광주에서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, 군사반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민중에 행해졌던 국가 폭력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한다”면서 “대한민국 정부는 미안마 군부의 시민학살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신속히 실행하라”고 주장했다.

/글·사진=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## 조선대 28일 ‘장애학생 취업 Job Go!’

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오는 28일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‘장애학생 취업 Job Go’를 개최한다.

28일 열린 ‘장애학생 취업 Job Go’는 장애학생들의 진로·직업 탐색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,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설계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. 특강은 국제관 역량개발실 2층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.

이번 프로그램은 ▲진출분야 별 진로 목표 유형 소개 ▲취업 준비전략 소개 ▲창업 및 취업 분야 지원 정책 소개로 나눠 진행된다.

윤오남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“장애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저학년 때부터 취업의 목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/채희종 기자 chae@kwangju.co.kr

## 전남대, 온라인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

28~29일 ‘톡톡 광장’ 진행

전남대학교가 중·고교생의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‘진로진학박람회’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

전남대는 오는 28~29일 이틀동안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전남대학교 온라인 진로진학 박람회 ‘톡톡 광장’을 진행한다.

이번 박람회는 ▲광주전남지역 진학상담교사와 입학사정관이 진행하는 진학 상담 ▲전남대학교 재학생과 함께하는 전공 탐색 ▲대입 전형 및

바람직한 고교생활 안내를 위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.

진학 상담은 고등학생, 전공 탐색은 중·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, 두 프로그램 모두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. 사전 신청은 25일까지 전남대학교 원클릭 서비스 홈페이지( <https://ao.jnu.ac.kr> )에서 가능하다.

양광열 전남대 입학본부장은 “중·고교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상담과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세심하게 제공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/채희종 기자 chae@kwangju.co.kr



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



MG 대광새마을금고

본점(계림오거리) 062)222-5851

서남지점(문화전당역) 062)227-1532

자산지점(법원정문 앞) 062)222-1431

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 
정기예탁금특판

1년 2.0%(200억한도)